

歷史學的 側面

金 宗 業*

I

이 글은 濟州研究史의 일부분으로 歷史學的 側面에서 그 현황을 탐색해 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연구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제주도 역사에 대한 연구업적의 정리는 金榮敦에 따라 《濟州道誌(下)》(1982)에 행해진 바 있으며 한편, 本大學校 人文大學 史學科에 의해 〈解放後 濟州研究概觀(Ⅳ) : 考古·歷史分野〉란 제목으로 발표된 바 있다. 여기서는 이 두 업적을 토대로 하여 시대별에 따른 연구업적을 재정리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는 데 그치게 될 것이다.

순수 역사학에 해당되는 것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先史·古代에서는 考古學的 연구업적의 언급이 불가피하여 논의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通史類에서는 鄉土史研究에 一助가 되는 업적은 논의 대상으로 삼는 반면 교육, 방위, 경제사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기술의 순서는 편의상 몇 단계의 시대 구분에 의해 그 시대에 상응하는 연구업적을 소개함으로써 현단계의 연구동향을 가늠해 보고 일반사에 해당되면서 향토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살피는 순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 연후에 그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의 연구과제와 방향까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 濟州大學校 教授

II

여기서 시대구분은 편의상 ① 先史·古代, ② 高麗, ③ 朝鮮·近代로 나뉘어 살펴 보고자 한다.

1. 先史·古代

제주도 先史文化의 탐구는 1960~70년대에 들어서면서 舊石器·新石器時代의 유물·유적이 발굴, 보고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시대의 文化의 윤곽도 점차 드러나고 있다.

鄭永和, 金元龍, 夫宗休 등에 따라 考古學的 접근으로 제주도 선사문화를 탐색하고 있으니, 鄭永和의 〈濟州道の 舊石器時代 穴居遺蹟地〉(1973), 〈濟州島의 考古學的 調査: 新發見 遺物을 중심으로〉(1977)와 金元龍의 〈濟州島의 先史文化와 住民〉(1976), 夫宗休의 〈韓國 新·舊石器時代의 穴居遺蹟에 대하여: 濟州島 빌레못굴·한들굴〉(1973) 등이다.

이외에도 유물의 파편을 통하여 考古美術學的 고증을 시도한 文基善의 〈濟州道 無文土器文化研究〉(1973)와 광지 패총을 다룬 宋錫範의 〈광지 패총에 대한 소고: 광지 패총을 발견하고〉(1973)가 있다.

支石墓에 대한 연구업적은 金哲俊, 宋錫範에 의해 쌓아졌으니, 金哲俊의 〈濟州島 支石墓 調査報告書〉(1959)와 宋錫範의 〈濟州道の 고인돌 小考〉(1964) 등 일련의 논문이 그것들이다.

선사시대 유물·유적 발굴에 따라 이들을 제주도의 先住民과의 관련을 시도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일어 金泰能의 〈州胡인에 대한 考察〉(1964), 梁弘植의 〈濟州人の 血統에 대한 小考〉(1962), 夫宗休의 〈濟州島의 先住民에 대한 考察〉(1964), 金貞培의 《韓國民族文化의 起源》(1973), 洪淳晩의 〈濟州原住民은 어디서 왔나〉(1975) 등 여러분의 論考가 있다.

지금까지 제주도 先史시대의 연구를 볼 때 고고학적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다른 지역연구와 비교하여 보면 조금은 뒤떨어져 있는 형편이며, 이 고고학적 측면에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진 다음에야 진정

한 의미에서 濟州島史가 정립이 될 것이므로 분발이 기대된다.

古代에 관한 연구는 金奉玉, 金宗業에 의해 다루어졌으며 石宙明, 金泰能의 論考도 있다.

金奉玉은 <耽羅古代史에 대한 小考>(1974)를, 金宗業에 따라서는 <耽羅國의 紀年에 대한 考察>(1974)과 <耽羅의 上古史論攷>(1978)가 발표되었으며, 古代 經濟에 관해서는 南都洙의 <三國時代의 馬政>(1963)과 <韓國牧畜發達上으로 본 三國時代의 馬政>(1968)이 있어 제주도 馬政에 대해서도 간간이 언급되고 있는 정도다.

2. 高 麗

이 시대의 연구업적의 특징은 한마디로 三別抄에 집중되고 있다는 데 있다. 이것은 이 시대 연구에 필요한 자료가 빈약하다는 탓도 있거니와 사건의 비중으로 볼 때 그만큼 중요하다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보인다.

三別抄와 그 항쟁의 연구는 金庠基의 <三別抄와 그의 亂에 대하여>(1947), 金泰能의 <耽羅와 三別抄>(1959), 金仁濟의 <金通精의 耽羅島 入據始末>(1969), 洪淳晩의 <三別抄의 抗爭>(1977) 등이 있으며 이외로도 李承俊, 김혁수, 金麟燦, 金宗業의 論考가 있다.

이 三別抄의 抗爭에 따른 영향을 다룬 것으로는 金泰能, 金仁濟, 梁相翊의 논고가 있는가 하면, 이에 따른 인물을 언급한 宋錫範, 文仁瓊, 문선희, 金燦洽 등의 발표가 있다.

三別抄 抗爭 이후 元에 의하여 耽羅總管府가 설치되면서 제주도는 元의 直轄領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고려말까지의 狀況을 다룬 論考로는 金泰能의 <耽羅와 元의 牧養時代>(1964~5), <蒙古의 耽羅支配와 崔瑩將軍의 牧胡討伐>(1959)이 있다.

이 시대 文化와 관련된 것으로는 金泰能의 <元順帝의 避難宮殿址와 伯伯太子의 墓>(1967), 梁重海의 <耽羅의 佛敎와 水精寺에 관한 研究>(1975), 李誠桓의 <蒙古族이 濟州佛敎에 끼친 영향>(1978) 등이 있다.

이 시대에는 하나의 주제에 촛점이 집중되었다는 특징도 있지만 인물에 치중되고 있음도 주목할 만하다. 앞으로 本土라든가 明과의 관계 등 대외교섭 활

동에도 시선을 돌려야 하리라 본다.

3. 朝鮮·近代

前代인 고려시대가 한정된 주제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이 시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일반 등 제분야에서 비교적 다양한 연구업적이 쌓아지고 있다.

우선 정치를 취급하고 있는 論考로는 金泰能의 〈太宗과 世宗時代의 濟州〉(1965), 金宗業의 〈李朝 世宗年間に 있어서의 濟州島〉(1975)가 있는가 하면 金燦洽, 金世革의 論考도 있다.

軍事와 관련된 연구로는 金泰能에 의해서 다뤄진 바 〈川尾浦의 倭亂과 乙卯倭變〉(1968)과 〈三浦倭奴의 橫行과 牧使 張琳의 濟州防禦施設〉(1972)이 있으며, 經濟에 대해서는 南都泳의 〈朝鮮時代 濟州島牧場：韓國畜産研究의 一端〉(1969)이 있어 유일한 업적을 남기고 있다.

社會와 관련지어서는 金泰能의 〈濟州島民의 流亡과 出陸禁止〉(1966)가 있으며, 叛亂과 民擾에 관해서는 金泰能, 金鎭鳳, 柳洪烈, 朴廣成, 金仁濟, 吳成贊 등에 의해서 업적이 쌓아지고 있다. 金泰能은 〈梁濟海亂과 濟州民의 自主企圖〉(1968)를 비롯하여 〈沈來復一黨의 謀逆事件〉(1972), 〈哲宗時代의 濟州農民暴動〉(1972)을 발표하였으며, 金鎭鳳의 〈哲宗朝의 濟州民亂에 대하여〉(1969)도 있다. 이밖에도 제주도민과 天主教徒 사이에 일어난 辛丑教難을 다룬 것으로는 柳洪烈에 따라 〈濟州島에 있어서의 天主教迫害：1901년의 教難〉(1956)이 있으며, 金泰能도 〈聖教亂：濟州에서의 天主教布教와 李在守亂〉(1962), 〈聖教亂事件과 三狀頭의 供述內容〉(1964)을 발표하였으며, 朴廣成의 〈1901년 濟州島民亂의 原因에 대하여：辛丑天主教迫害事件〉(1967), 金仁濟의 〈濟州의 辛丑年 天主教教難〉(1967)과 이를 외교면에서 다룬 논고가 있는가 하면 吳成贊의 〈李在守亂〉(1967)도 있다.

국제관계를 다룬 것으로는 玄季順에 따라 〈韓末 韓日漁採問題의 一研究：濟州漁採問題를 중심으로〉(1964)가 발표되었으며 李元淳의 〈韓末 濟州島通漁問題一攷〉(1967)가, 權錫奉의 〈李善得의 派日과 清側 介入：특히 濟州漁採永罷交渉을 중심으로〉(1970)가, 韓祐勳의 〈開港後 日本漁民의 浸透：1860 ~ 1894〉(1971)이 각각 발표되었다.

인물에 대한 연구로는 高得宗과 金萬德 및 효자·효부가 다루어졌는가 하면 제주도에 牧民官으로 부임해 왔거나 流配되었던 人物 가운데 제주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에 관한 論考가 꽤 발표되어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함을 보게 된다.

李承俊의 〈이 고장의 人物：世宗朝 漢城判尹 靈谷 高得宗〉(1978)이 있으며 金泰能은 〈金萬德의 飢民救濟功績〉(1964)을 비롯하여 〈金萬德의 生涯와 行績〉(1971)을, 韓贊奭은 〈愛農偉人列傳：金萬德篇〉(1964)을 각각 발표하여 金萬德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

효자·효부에 대해서는 《續修三綱錄》，《耽羅文獻集》，《朝鮮寶輿勝覽》 등에서 조사한 뒤 직접 현지를 답사, 확인하고 기술한 金燦洽의 〈濟州島의 忠孝人物瞥見〉, 〈忠孝를 兼全한 遺腹子 李弼完〉, 〈都近川의 구슬인 孝婦 金玉〉, 高南俊의 〈三旌閣의 家門을 이룬 朴繼昆〉, 金東醒의 〈어버이 供養에 一貫한 夫千謙〉, 金亨翊의 〈正道를 몸소 실천한 洪達漢〉, 文仁璟의 〈이웃을 잘 돌본 模範人 玄遠祥〉, 〈媳父母를 잘 모신 孝婦 崔氏〉, 威元澤의 〈獨身으로 一貫한 孝子 高允文〉 등이 《교육제주(36)》(1977)에 게재되었다.

牧民官 또는 流配人을 다룬 것으로는 金泰能은 〈古代 濟州의 學問과 文化發展에 기여한 濟州의 謫居人들〉(1964)을 위시하여 일련의 논고들인 〈濟州飢民과 同居한 牧使 盧錠〉(1964), 〈濟州土俗과 永川 李牧使의 治績〉(1967), 〈秋史 金正喜의 大靜謫居와 그 영향〉(1968), 〈牧使 金倣의 治績과 三泉書堂〉(1969), 〈申命圭 二代의 大靜縣謫居〉(1969), 〈盧氏夫人과 까치가마귀와 安德溪谷의 任觀周詩〉(1971)가 있는가 하면, 秦元日·金寶鉉·金泰能의 〈五賢의 行蹟〉(1971), 秦元日의 〈玄玄居士 朴泳孝〉(1970), 洪淳晩의 〈濟州流謫 一番地〉(1973), 〈濟州에 恨 맺힌 流刑人들〉(1979)이 있으며 洪貞杓 外의 〈李朝 濟州 牧民官 16人〉(1975)이 있다.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이네들이 남긴 제주도 관계 저술들이 번역되었다는 것이다.

李健의 《濟州風土記》，金尙憲의 《南槎錄》，金允植의 《續陰晴史》，金淨의 《濟州風土錄》이 각각 金泰能, 朴用厚, 金益株, 洪貞杓 등에 의하여 번역, 발표된 바 있으며 이밖에도 鄭東愈의 《晝永編》이 高柄翊과 崔常壽에 의해 부분적으

로 번역되었으며, 張漢喆의 《漂海錄》도 鄭炳昱에 따라 상세하게 해제되었으며 단행본으로 출간되기도 하였다.

地圖에 관해서는 吳洪哲의 〈耽羅地圖의 性格〉(1973)이 있는가 하면 權寧徹의 〈耽羅巡歷圖에 대하여〉(1975)가 있다.

한편, 제주도가 지닌 지리적 조건에서 오는 漂流관계 연구도 많이 쌓여 있는 편이다. 金泰能의 〈和蘭船舶의 大靜縣漂着〉(1969)을 비롯하여 〈정의현에 反淸漢商의 漂着과 그들에 대한 아국의 조치〉(1969), 〈和蘭國漂人 벨트브레의 行蹟〉(1970), 〈反淸漢人들의 濟州漂着〉(1970) 등이 있는가 하면, 洪以燮의 〈鄭東愈의 ‘晝永編’에 보인 異國語에 就하여〉(1953) 등의 논고가 있어 外國人의 잦은 표류 사실을 알려 주고 있다.

교육에 관계된 연구업적은 玄仁洪, 康錫奎, 金宗業에 의해 수행되었는 바, 玄仁洪의 〈本島教育의 歷史的 背景에 대한 小考: 李朝時代 以後를 중심으로〉(1966), 康錫奎의 〈濟州鄉土教育의 史的 考察: 近世 朝鮮時代를 중심으로〉(1978)가 바로 그것들이다.

근대에 관계된 연구는 吳成贊, 金원민, 咸元澤, 金奉玉, 姜龍三 등에 의해 국운동에 주안점을 두고 다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조선·근대의 연구현황은 인물, 민란, 표류 등에 업적이 많이 쌓여진 것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고 보아지나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술 참조).

4. 通史類

여기서 通史類라 함은 歷史 또는 考古分野에 관한 일반사를 의미한다. 제주도에 관한 자료, 書誌學, 鄉土史 등이 포함되나 교육, 방위, 경제 등에 관해서는 제외된다.

제주도 관계 자료를 모아놓은 것으로는 石宙明의 《濟州島文獻集》(1949)과 《濟州島資料集》(1971)이 있으며, 제주도교육위원회가 펴낸 《耽羅文獻集》(1976)이 있다. 이 자료집에는 《瀛洲誌》를 비롯하여 金淨의 《濟州風土錄》, 李元鎮의 《耽羅誌》, 金錫翼의 《耽羅紀年》 등 귀중한 제주도 자료가 여러분들에 의하여 번역되어 있어 향토사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書誌學的 側面에서도 많은 서적이 간행되어 있으니, 淡水契의 《增補耽羅誌》(1954)가 프린트판으로 출간된 이래 梁弘植·吳太用의 《濟州鄉土記》(1958)도 역시 프린트판으로, 金玉敏外의 《濟州道誌》가, 제주도 교육위원회의 《鄉土誌》(1972), 韓致文의 《耽羅實錄》(1973), 朴用厚의 《濟州島誌》(1966)등이 간행되었는데 전부 제주도 全島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郡 또는 邑面 단위의 향토지도 많이 발간된 편인데, 高柄五·朴用厚의 《元大靜郡誌》(1968)를 비롯하여 朴用厚의 《南濟州郡誌》(1978)가 있다. 邑面 단위의 것으로는 金廷彥의 《郭支誌》(1951), 金玉敏의 《翰林邑誌》(1963), 金孟玉外의 《納邑鄉史》(1969), 金宗根의 《靉來誌》(1976), 金寶鉉의 《朝天誌》(1975) 등이 있으며 民族誌的 方法에 따라 정의고을을 다룬 金榮敦의 《旌義고을》(1973)이 있는가 하면, 在日僑民들에 의해 저술된 《濟州島》(1975)가 있다. 耽羅星主遺事編纂委員會에서 간행된 《耽羅星主遺事》(1979)도 귀한 자료가 될 것이다.

濟州島史 定立을 시도해 본 通史的인 자료로는 金泰能의 《耽羅鄉土史草稿》(1952), 《濟州島略史》(1969~77)와 李膺鎬著·朴用厚譯의 《毛羅國書》(1977)도 있으며, 최근에 金泰能의 논문들을 한 곳에 수합한 《濟州島史論攷》(1982)도 손쉽게 구해볼 수 있는 자료다. 그리고 제주도가 기획, 편찬한 《濟州道誌》(1982)도 제주도를 알려는 분에게 지침서 구실을 할 좋은 자료라 생각된다.

이상 연구현황을 살펴볼 때 先史時代에 따른 연구는 考古學的 접근이 있고 난 연후에 이루어져야 할 분야이므로 아직 미미한 형편이긴 하지만 한참 일기 시작한 조사, 발굴작업이 전개되고 있어 앞으로의 연구가 기대되며, 高麗시대 는 아직 연구가 저조한가 하면 하나의 주제에 쏠려있는 반면, 朝鮮時代에 오면 여러 학자에 따라 비교적 다양한 주제로 폭넓게 연구되어 지고 있다.

通史類 분야에서는 書誌學的 側面의 서적이 간행되어 향토사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III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연구현황을 토대로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시함으로써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탐색하고 그 전망에 대신하려 한다.

濟州島史를 연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補助科學分野는 考古學과 神話에 의하여 연구되고 검토,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濟州島의 考古學에 대하여는 여러 學者들에 의하여 부분적이나마 발표된 바 있다. 그 論述들을 간추려 보면

1. 濟州島의 先史時代의 文化와 住民
2. 支石墓 調查報告書
3. 新·舊石器時代의 穴居遺蹟 ; 빌레못굴 한들굴
4. 고인돌, 돌멘, 貝塚
5. 舊石器時代의 穴居地
6. 無文土器文化
7. 濟州島의 上古史

등의 論文이 있으나 이것으로 濟州島史를 구명하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있다. 先史時代의 文化를 구명 함에는 최소한도 2, 3 개소의 先民들의 住居地를 발견하여 發掘이 행해져야 한다. 특히 濟州島 先史時代의 역사 분석은 三姓神話에서 색출되어 그 시대적 분석이나 社會相 및 文化相 구명에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하루바삐 考古學 분야를 개척하여야 濟州의 先史時代의 史的 究明이 이루어질 것이다.

濟州島 先史時代의 文化究明에 있어서 지금까지 많은 支石墓가 발견되고 있고 그것이 山北地方과 山南地方에 분포되어 있으므로 新石器文化에 대한 대략을 짐작할 수 있겠으나, 濟州島의 文化發展段階에 있어서 舊石器時代·新石器時代·靑銅器時代·鐵器時代 등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支石墓가 있는 한 그 전의 社會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新石器社會가 존재했다면 당연히 靑銅器社會의 존재가 형성되었으리라 믿어진다. 그런데 濟州島 歷史過程에서 이 구분이 확실치 않다. 이것 역시 考古學的 發掘이 이루어져야 考證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三姓神話에 있어서도 문헌상에 여러 가지 異本이 있어서 그 史的 分析은 難하다고 하겠다. 高麗時代의 문헌과 李朝時代의 문헌과의 차이 등은 문헌 선택에 있어서 難題라 할 수 있으며 이런 물의는 三姓間에서 암암리에 야기되는 경

우가 있다. 이런 것도 考古學的 研究가 어느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면 해소되리라 믿거니와 三姓神話의 내용에 의하여 濟州史를 구명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縱的인, 즉 말하자면 垂直的 記述에 치중하여 橫的인 連關性이 全無하다는 것이다.

神話에 의하여 분석건대 耽羅國의 成立은 原初社會부터 성립된 것처럼 풀이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耽羅國의 성립과 原初社會와는 상당한 시간의 격차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그 原初社會의 史的 究明은 新石器中頃이나 新石器末이나의 史的 究明은 考古學的 考證이 있음으로써 決定된다고 보며, 또 그 당시의 來島한 人種에 대하여도 補助科學인 人類學 및 言語學과 民俗學, 解剖學 등의 體系化가 이루어진 형태에서 구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막연하게 神話의 내용만을 가지고, 그 文字解釋만을 가지고 東洋史와 우리나라 역사와의 관련성을 무시하여 풀이하는 것은 좀 생각할 문제로 본다.

耽羅社會와 耽羅國의 해석 문제만 해도 신화적 내용에 있듯이 耽羅社會가 성립됨에 따라 社會秩序의 확립과 산업이 어느 정도 발전한 단계(農耕文化의 發展)에 이르러 新羅에 高氏 삼형제의 入朝를 계기로 耽羅 國號의 유래를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시기는 新羅 盛時로 되어 있으니, 신라의 성시는 三國統一 이후이므로 그 이전의 耽羅社會의 생활상은 자세히 알 수 없다. 통일 이후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鐵器時代인 바 濟州에 있어서의 新石器末부터 青銅器時代의 文化過程은 역사적으로 구명되어야 한다. 그 이전의 문헌으로 《三國史記》百濟本紀에 의하면 百濟 文周王 2년(476) 耽羅와의 交涉이 있고, 東城王 20년(498) 耽羅征伐을 기도하다가 耽羅國主의 乞罪로 인하여 회군한 기록 등이 있을 뿐이며 그 이외의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三國時代에 있어서의 濟州와 本土와의 交涉關係는 濟州의 物産이 高句麗까지 건너간 것을 볼 때 대단히 활발했으리라 믿어지는데,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에는 기록이 없으니 문헌의 인멸인가 혹은 死藏인가, 만약에 死藏이면 발굴하여 밝혀내야 할 것이다.

또 統一新羅와의 관계에 있어서 약 270여년간에 걸쳐 政治的 軍事的 關係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約定이 없이 두 나라의 관계가 유지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며, 무엇인가 耽羅와 新羅와의 관계는 主從關係인지, 아니면 朝貢國으로서의 관계인지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고증할 수가 없다.

그리고 耽羅의 상징인 星主와 王子의 직책인데 흔히 기록에 의하면 星主廳이 나오지만 星主廳의 機構와 構成要員 관계도 明細치 않다. 또 현재 星主廳의 위치도 명백하지 않다. 대략 현재 觀德亭 부근 郵遞局이 星主廳 위치라고 하나, 考證할 근거가 없어 문제다. 또 星主의 권한도 문제다. 星主의 정치적인 권한이 독립국으로서의 王의 권한과 동등하였는지 아니면 제한된 1개의 藩國으로서의 誥命의인 권한인지 명백하게 기록이 전해 주는 바 없다. 이것 역시 앞으로의 濟州史 究明過程에서 밝혀야 할 문제다.

高麗時代에 들어서면서 耽羅國(濟州)은 統一新羅 때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高麗의 藩國으로 현상 유지가 되더니, 肅宗 10년(1105)에 이르러 耽羅郡으로 却下되었고 毅宗 때에는 耽羅縣으로 개칭되어 縣令을 배치하였다. 高麗 때 와서 副使制가 생겨 耽羅國의 星主는 유명무실하게 정치 권력으로부터 물러나 상징적인 존재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기간에 나타난 여러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도 아무런 기록이 없으니 어떤 일일까? 물론 武士執權時代에 해당하므로 기록하지 않은 것인지, 기록이 있었는데 인멸되었는지, 혹은 死藏되었는지, 적극 문헌 발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三別抄의 入據와 濟州島와의 관계에 있어서 현재 涯月邑 古城里에 抗蒙殉義碑가 세워져 있다. 이 抗蒙殉義碑의 위치가 그 당시의 內城이나 外城이냐의 논란이 있다. 이것 역시 考古學的인 發掘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 아니라 문헌 중심으로 추정된 위치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지역의 考古學的 發掘이 이루어져야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사료된다. 또 高汝霖과 金須가 入島하여 環海長城 3백里築造 문제도 기록 그대로 인정할 것인가? 너무나 짧은 시일 내에 3백리 長城을 축조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다. 이것도 여러 가지 문헌을 수집, 고증되어야 할 문제의 하나이다.

高麗時代의 濟州島에 관한 논문으로 약 20편이 발표되어 있으나 그 논문들이 高麗時代의 濟州島史 정립에 있어서 史料로서 미흡한 상태이다. 또 그 논문들이 부분적인 면에 치우쳐 있어 포괄적으로 高麗時代에 있어서의 濟州島 政治·社會·教育·經濟·宗教 등을 서술하기에는 문헌적으로 고증이 어려운 문제이다. 보다 많은 문헌을 국내는 물론 일본 혹은 자유중국 등에까지 가서 死藏된 濟州島에 관한 문헌을 발굴함으로써 濟州島史의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

을까 생각된다.

朝鮮時代に 들어서면서 濟州島에 관한 기록은 점차 그 수요가 많고, 일부 저서와 많은 논문 발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 한정된 문헌이요 또 광범위하게 문헌 수집이 안 되었기 때문에 濟州島史 정립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1982년에 발간한 《濟州道誌》만 보더라도 종합적인 서술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사적 고증이 미흡한 상태에서 각 집필자가 가지고 있는 문헌을 중심으로 집필하였기 때문에 先史時代로부터 高麗史까지의 서술에 있어 再檢討될 부분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朝鮮時代の 濟州島에 관한 연구 논문의 분량과 그 내용은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논문과 저서를 중심으로 미확인된 역사 자료를 발굴하여 정리하게 되면 濟州島史 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 살핀 바와 같이 濟州島史가 안고 있는 특수 사정을 앞으로 향토사를 연구하는 사람이나 또 濟州大學校 人文大學 史學科 학생들에 의하여 보다 차원 높게 研修하여 史料와 資料를 발굴, 고증해야 할 줄 안다. 각종 고전과 圖書文獻에 의하여 史料들이 수집되어야 하며 島內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적인 遺蹟과 遺物 등을 보호, 유지는 물론 傳說과 民俗資料 등에 대해서도 사라지기 전에 하루 속히 기록하여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濟州島史에 대한 現代的 研究의 文獻은 그렇다 할 만한 것이 없으나 古文獻中 人文地理와 歷史를 수록한 《耽羅志》(李元鎮著)와 《耽羅紀年》(金錫翼) 《三國史記》《高麗史》《李朝實錄》 등은 濟州島史 연구에 중요한 문헌들이며 그 외의 문헌으로는 《東國輿地勝覽》《高麗史節要》《東國通鑑》《海東釋史》《擇里志》《燃藜室記述》 등과 中國史中 二十四史 및 《元史》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또 高麗時代 이후 朝鮮時代に 이르는 牧使·御使·流配人 등의 上啓와 文集은 물론 日帝下의 日人學者들의 연구 발표문과 西洋文獻中 濟州島에 관한 기록은 모두 濟州島史 研究에 좋은 참고 문헌이 될 것이다. 現代史上的 濟州島史 再照明은 極東亞細亞지역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며 서기 2천년대를 바라보는 현시점에서 濟州島의 史學的 人文地理學的 研究와 發展은 濟州島의 綜合產業開發과 병행하여 성취되어야 한다. 아직 미흡한 역사적 史實에 대하여 뜻있는 학자 및 학도들의 研鑽努力이 경주되어야 할 줄 안다.